

노병천의 손자병법 인문학

글.

노병천 미국미드웨스트대학교 리더십박사
전 육군대학 전략학처장
전 미국지휘/참모대학 교환교수
전 나사렛대학교 교수, 부총장
현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 원장

15

싸울만한 상대인가 잘 판단하라 칭기즈칸의 부하라 전투

지가이여전불가이여전자승
(知可以與戰不可以與戰者勝)
—『손자(孫子) 모공 제3편』

1995년 12월 31일,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00년의 마음을 선언하면서 1000년간 최고의 인물을 발표했다. 그가 바로 칭기즈칸이다. 또한 1997년 4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인 가장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도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대륙을 정복한 몽골제국의 창시자다. 그가 정복한 땅은 오늘날의 몽골, 중국, 러시아를 거쳐 쿠웨이트, 독일,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 등을 포함했으며, 당대 고려도 그의 간접 지배하에 있었다. 정복한 땅의 넓이는 777만 km²로써 알렉산더의 348만 km², 나폴레옹의 115만 km², 히틀러의 219만 km²를 다 합한 것보다 넓다. 역사가들은 13세기 칭기즈칸의 정복 전쟁 때 사살된 사람들의 수를 100만에서 30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1219년에 출병하여 시작된 호라즘 정벌은 1225년 몽골 고향으로 귀환할 때까지 햇수로 7년, 그리고 실제 전쟁 기간은 6년이 소요되었다. 이 중 1220년 4월 11일 일어난 부하라 전투는 적의 허를 찌른 기습적인 전격전이었다. 이 전투는 몽골군



칭기즈칸 (1155/62/67? - 1227)

이 처음으로 서구역사에 그들의 모습을 드러낸 전투로 13세기 무슬림 국가들에 큰 충격을 주었다. 몽골보다 12년 정도 앞선 신생제국인 호라즘은 당시 실크로드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칭기즈칸은 동쪽에서 가장 큰 세력이던 금나라를 1216년 굴복시켰다. 이후 그는 서쪽으로 관심을 돌렸다. 1218년, 그는 호라즘 왕국의 샤 무하마드 2세에게 사절단을 보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의 통행을 재개하자는 것이었다. 무하마드 2세는 기꺼이 조약에 서명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몽골 상인들이 호라즘의 북동쪽에 위치한 오토라르라는 도시에 도착해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했는데, 오토라르의 총독이 몽골 상인들을 스파이로 몰아 전부 살해했던 것이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칭기즈칸은 무하마드 2세에게 정식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고 책임자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무하마드 2세는 보라는 듯이 그 사절단 몇 명을 죽이고 몇 명은 얼굴을 흉측하게 망가뜨리고 돌려보냈다. 이 행위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무슬림 국가 전체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는 사람은 그때까지 없었다. 상대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이다.

1219년 마침내 칭기즈칸은 호라즘 정벌을 위해 15만 명의 병력을 모았다. 무하마드 2세는 칭기즈칸의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무하마드 2세는 40만 명의 정예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자신의 영토에서 싸운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칭기즈칸은 두 방향으로 부대를 나누어 호라즘 제국으로 침공해 들어갔다. 한 부대는 호라즘의 북부지역을 향하는 아쿰 사막과 알라타우 산맥 사이의 황폐한 골짜기를 지나는 길로 보냈다. 다른 부대는 위구르 관문을 지나 투르키스탄 북쪽의 천산산맥을 넘어갔다. 영하 50도를 내려가는 천산산맥의 추위는 매서웠다. 무하마드 2세는 설마 겨울에 그 산맥과 사막을 넘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약 50Km 떨어진 전진 불독의 초원지대에 세워진 칭기즈칸 기마상, 높이 총 50m로 2010년 완공되었다. / 출처 : cutterlight.com

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몽골군이 나타난 것이다. 1220년 몽골군대는 오토라르에 도착했고 도시의 성채를 바라보며 병력을 포진했다. 장장 5개월 동안의 전투가 벌어졌으며 성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지탱할 수 없는 한계에 달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몽골군에게 항복했다. 그리고 곧바로 칭기즈칸은 키질 쿰 사막을 넘어 부하라로 향했다. 칭기즈칸 이전에 사막을 횡단해 정복전쟁에 성공한 군대가 없었다. 이 놀라운 횡단은 역사가들에 의해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은 것과 같은 충격으로 기록되고 있다.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 / 출처 : www.paradisetnl.co.kr

무하마드 2세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4월 초에 들어서였고, 그때 이미 칭기즈칸은 남쪽 사막 끝에 나타나 누르타를 함락시키고 부하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달린 것이다. 칭기즈칸은 부하라의 성문 중 하나를 열어 두어 주둔군을 성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했다. 결국 이 유인작전은 성공했고 4월 11일에 부하라는 함락되었다. 이로써 불과 한달 반 만에 수적으로 열세한 몽골군은 30만에 달하는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여세를 몰아 칭기즈칸은 끝까지 호라즘의 군대를 추격해서 호라즘의 마지막 요새 사마르칸트에 있는 11만의 투르크와 타직 병사들을 섬멸했다. 사마르칸트를 탈출한 무하마드 2세는 칭기즈칸의 추격대에 의해 정신없이 쫓기다가 카스피 해의 작은 섬 아베스쿤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굶주림 속에서 죽고 말았다.

손자병법 모공(謀攻) 제3편에 보면 승리를 미리 알 수 있는 다섯 가지(知勝有五)가 나온다.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싸울 수 있는 적인지 싸우면 안 되는 적인지를 아는 것’(知可以與戰不可以與戰者勝)이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칫 잠자

는 사자의 코털을 뽑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하마드 2세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는 칭기즈칸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칭기즈칸의 전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만의 전쟁방식을 알 필요가 있다. 칭기즈칸은 심리전을 잘했다. 항복하는 자에게는 정의를 약속하고, 저항하는 자에게는 파괴를 맹세하며, 상대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지휘관과 원로와 평민들은 들어라! 신이 나에게 동에서 서까지 지상의 제국을 주었음을 알라. 복종하는 자는 살려줄 것이지만, 저항하는 자는 부인, 자식, 하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칭기즈칸이 즐겨 쓰던 심리전의 문구다. 몽골군들은 학살을 피해 일부 피난민들이 도망칠 때는 그들을 쫓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그것은 적국 전역에 공포감을 퍼트리려는 일종의 선전술이었다. 칭기즈칸은 현장 중심주의에서 나오는 ‘스피드’를 중시했다. 그 같은 스피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몽골말의 신체적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몽골말은 몇 날 며칠을 달려도 지치지 않는 당대 최고의 비밀병기였다.

몽골군은 항상 말을 개인당 서너 마리 끌고 다녔다. 말안장 주 위에는 ‘볼츠’라고 불리는 말린 양고기 또는 소고기가 있었다. 몽골군은 잠자는 것과 식사하는 것까지도 말 위에서 해결했다. 갑옷은 거의 입지 않았고, 입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가죽옷 위 주었다. ‘게르’(Ger)라 불리는 몽골군의 천막을 정리하는 데는 약 1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몽골군은 하루 약 300~40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주파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칭기즈칸은 강력한 조직력을 가졌다. 전 몽골군을 ‘십진법’에 따라 편성했다. 십호제, 백호제, 천호제 등을 조직했고 이를 통해 국가 조직을 만들고, 그것에 근거하여 몽골을 단단하게 결속시켰다. 무엇보다도 칭기즈칸은 인재를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는 적군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끝난 뒤 제국의 일원으로 충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특히 기술자를 우대하는 등 국가의 장래를 준비하는 데 철저했다. 이런 칭기즈칸이었기에 역사상 가장 넓은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고, 천 년의 인물이 된 것이다. 이런 그를 어떻게 일개 호라즘의 왕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었던가. 모든 일에 대세 판단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知可以與戰不可以與戰者勝

지 가 이 여 전 불 가 이 여 전 자 승

싸울 수 있는 적인지
싸우면 안 되는 적인지를 알아야 이긴다

익히 알려져 있는 칭기즈칸의 어록을 보면서 현재 내 위치에서 다시금 용기를 가져보자.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 애, 노인까지 합쳐 2백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뱀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

知 알 지
可 옳을 가
以 써 이
與 더불어 여
戰 싸울 전
不 아닐 불
可 가할 가
以 써 이
與 더불어 여
戰 싸울 전
者 놈 자
勝 이길 승

멀리 그리고 크게 보라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전략

벌교 벌교 벌병 공성(伐謀 伐交 伐兵 攻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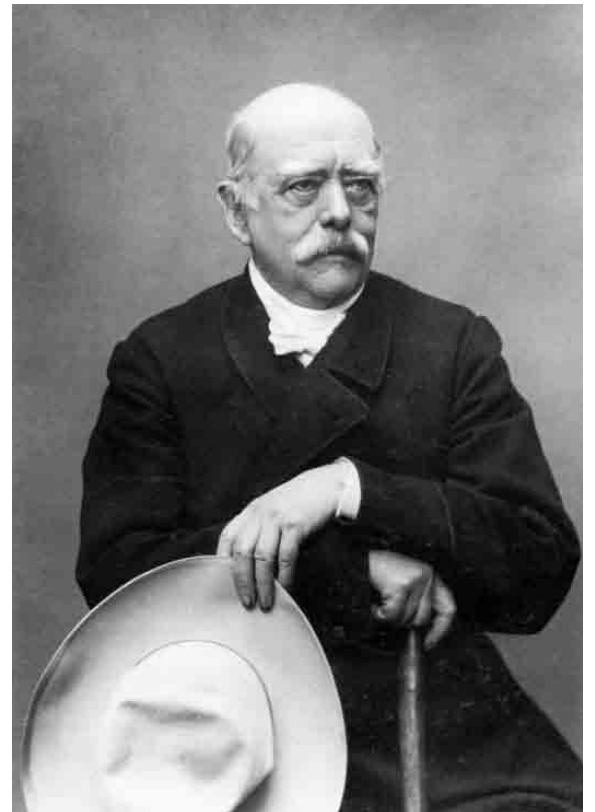
—『손자(孫子) 모공 제3편』

“휘잉~” 무지막지하게 큰 돌들이 하늘을 난다. “꽉! 꽉!” 순식간에 와르르 성벽이 무너진다. 커다란 방패들을 위와 옆으로 맞댄 병사들이 마치 거북 등과 같은 모양을 하고 성벽을 향해 전진한다. 용감한 병사들은 썰기 모양의 커다란 나무를 들고 성문을 향해 돌진한다. 긴 사다리를 성벽에 기대고 안으로 들어가고 안간힘을 쓴다. 이들을 향해 성안의 병사들은 뜨거운 물과 기름을 쏟아붓는다. 성벽에 걸쳐진 사다리를 걷어찬다. 수많은 병사들이 성벽을 타고 오르다가 개미처럼 떨어진다. 온몸에 불이 붙어 이리저리 뒹굴며 비명을 지른다. 검붉은 화염과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다. 지옥이 따로 없다. 자, 이러한 장면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그렇다.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攻城戰)에서 볼 수 있다. 2005년 제작된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에는 공성전 장면이 아주 잘 묘사돼 있다. 영화는 1187년 제2차 십자군전쟁 당시 무슬림 세계의 맹주 살라딘(Saladin)의 공격을 받아 끝까지 저항하는 예루살렘 성의 숨 막히는 공방전을 그렸다. 이러한 공성은 어느 편이 이기든지 피해가 가장 많은 전쟁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전쟁은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피를 가지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피로써 멋지게 성공한 좋은 예가 있다. 철혈재상(鐵血宰相)이라 불린 비스마르크(Bismarck)의 외교술이다. 비스마르크는 오늘날 독일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이른바 ‘외교의 달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연방만이 유일하게 독일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독일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면 아무리 정적(政敵)일지라도 자기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는 사회주의자를 혐오하면서도 1863년 독일 최초의 사회당인 독일노동자연맹을 창설한 페르디

난트 라살과도 친분을 쌓았다. 독일 통일을 이루기 위해 프로이센이 상대해야만 하는 주변국은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였다. 그는 먼저 오스트리아를 겨냥했다.

당시 헝가리를 통치하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에 항거하는 헝가리 혁명주의자들과도 깊숙이 접촉해 오스트리아에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러시아와는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외교술을 발휘했는데, 1863년 1월 폴란드에서 항거가 발생하자 비스마르크는 재빨리 러시아 편을 들어 지지했다. 훗날 독일 통일의 든든한 후원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프랑스 역시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외교술을 발휘했다. 1865년 프랑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우의를 다졌고, 나폴레옹 3세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강력한 이웃인 러시아와 프랑스에게 내정불간섭을 보장받자 드디어 비스마르크는 1866년 6월 17일 선전포고를 하고 오스트리아를 공격했다. 보오전쟁(普墺戰爭)이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했다. 이때 프로이센의 군부는 오스트리아를 계속 공격해 전멸시킬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질 경우 다른 나라의 개입이 있을 것을 우려한 비스마르크는 전쟁을 마무리했다. 이제 비스마르크의 유일한



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1815 - 1898)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독일제국 선포식, 하얀 제복을 입은 이가 비스마르크
/ 출처 : wikipedia

걸림돌은 프랑스였다. 1870년 공석 중인 스페인 왕위 계승문제가 발생하자 비스마르크는 의도적으로 프랑스가 꺼리는 인물을 지지하고, 7월 14일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한다. 보불전쟁(普佛戰爭)이다.

비스마르크의 외교적 수완으로 프로이센의 우군이 된 남부 독일국들이 즉각 전쟁에 가담했고 결국 프랑스는 무릎을 꿇었다. 1871년 1월 18일 포성이 아직도 그치지 않은 가운데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빌헬름 1세를 황제로 한 독일 통일이 선포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외교의 달인 비스마르크에 의한 치밀하고도 원대한 외교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손자병법 모공(謀攻) 제3편에 보면 전쟁을 하는 방법 네 가지가 나온다. 벌모(伐謀), 벌교(伐交), 벌병(伐兵) 그리고 공성(攻城)이다.

벌모라는 것은 상대방의 꾀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아예 내게 덤빌 생각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이렇게만 된다면 가장 좋다.

벌교는 상대방의 주변에 있는 동맹관계를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비스마르크가 보여준 외교술이 그것이다. 이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면 적의 동맹국을 잘 구슬려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더 좋다.



벌병은 병력을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전쟁의 모습이다. 이때부터 피도 흘리고 건물도 깨어지고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한다.

공성은 성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되며 가장 어렵게 진행되는 전쟁이다.

전쟁은 가급적이면 실제적인 피를 흘리지 않는 벌모와 벌교 단계에서 마무리하면 좋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악의 전쟁단계인 공성까지 갈 경우에는 대부분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많다. 이쯤 가면 돈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법정소송까지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공성의 단계에 갔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맞붙어 싸운다면 그 결과는 볼 보듯 뻔하다. 어찌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나도 엄청나게 깨지고 피해를 본다. 돈도 많이 잃는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공성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전략도 없고 꾀도 없는 것이다. 비스마르크처럼 멀리 보고 크게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게 현명하게 전쟁을 하는 방법이다.

있는데 그 이유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심복의 의미를 잘 알았던 비스마르크다운 행동이다. 기업의 상사들이나 아니면 창구에서 일을 하는 사원들이라도 이런 심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서로 다투지 않고 일을 해결해나가도록 하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투게 된다면 반드시 이겨라. 이기면 해적도 영웅이 되고 해적선도 전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굴복보다는 심복을 얻도록 하자. 그러나 명심하자. 때에 따라서는 지는 것이, 아니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逆說的)인 사실을. ㉮

당장의 성과보다도 멀리 오랫동안의 이익을 보자

伐謀 伐交 伐兵 攻城

벌 모 벌 교 벌 병 공 성

피를 치고, 동맹을 치고,
병력을 치고, 성을 친다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굴복(屈服)과 심복(心服)에 대한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굴복보다는 심복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굴복은 힘이 약할 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특히 회사나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입이 포도청이라 대체로 굴복의 자세로 살아가기 쉽다. 따라서 힘이 강해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다시 고개를 쳐들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항복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심복은 다르다.

심복은 심열성복(心悅誠服)의 준말로써 충심(衷心)으로 기뻐하며 성심(誠心)을 다하여 순종(順從)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항복을 거둘 때 진정한 승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비스마르크가 보오전쟁에서 이기고도 오스트리아의 땅을 한 치도 요구하지 않

伐 칠 벌
謀 꾀 모
伐 칠 벌
交 사귄 교
伐 칠 벌
兵 군사 병
攻 칠 공
城 성 성